사진기자의 딴 짓

우산, 함께 쓸까요

'우와, 파라솔 우산?'

엄청 큰 것도 가지고 나왔네요. 들고 나니기도 무거울텐데, 대단합니다.

전남대를 지나다 초대형 우산을 쓰고 가는 학생을 만났습니다. 느긋하게 걸아가는데, 우산가게에서 산 것은 아닐테고.

혹시 우산을 안 가지고 나왔다가 비가 오니까 급한 김에 식당 앞에 꽂아 있던 파라솔을 슬쩍 뽑아 온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자신의 집이 혹시 파라솔이 있는 식당?

용기도 가상하고, 예쁜 여학생의 눈에 띄어볼려는 연애전술인지 어쨋든 재미있습니다.

사실 우산은 귀찮은 물건 아닙니까. 비가 자주오는 장마철에도 집을 나설 경우 비가 오지 않으면 우산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게 현대인들의 몸에 밴 습관입니다.

결국 번거롭다며 빈손으로 그냥 집을 나섰다가 후두둑 쏟아지는 비에 신문지를 머리에 얹고 황급히 뛰어가는 경험들 많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산도 참 많이 변했습니다.

바람만 조금 불어도 뒤집혀져 못쓰게 되버리는 60~70년대 대나무 비닐우산, 기억나십니까. 빨간 우산, 파란 우산을 넘어 요즘은 형형색색에 모양도 크기도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우산은 굉장히 하찮은 물건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우산 하나 잃어버리면 부모들에게 혼나고, 보통 큰일이 아니었지요. 이제는 들고 나갔다가 비만 오지 않으면 주인의 버림을 받고 외딴 곳에 버려지는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오늘의 유머

■세종대왕

어린 조카에게 만원을 들고 물어봤다.

"철수야, 이 사람 누군지 알아?"

"응. 알아!"

"어이구~ 알아? 그래 누군데?"

"세종대왕 할아버지"

"햐~ 기특해라. 맞았네. 그럼 그 할아버지가 뭐 만들었는지 알아?"

세종대왕을 아는 조카에게 잔뜩 기대를 했다.

"응~ 알아! 만원!"

■기름으로 가는 기차

회사에 다니는 어떤 여자가 회식이 끝나고 늦게 지하철을 탔다.

그 여자가 옆에 술취한 아저씨와 함께 전철을 타고 가는데 옆자리에 술취한 아저씨가 술 냄새를 확확 풍기면서 졸린 눈으로 멍하게 앉아 있었다. 그 여자는 그냥 무시한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얼마 안가서 그 아저씨가 갑자기 아가씨에게 말을 건냈다.

"이봐 아가씨!! 이 열차 기름으로 가나?"

그러자 여자가 대답했다.

"무슨 기름으로 가요! 전기로 가지! 아저씨 바보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들은 아저씨는 다음역에서 황급히 뛰어 나갔다.

전철문이 닫히자 뭔가를 보고 있던 아저씨는 전철 밖에서 그 아가씨에게 막 화를 내면서 욕을 하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전철을 타고 계속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1분쯤 지나 전철안에서 안내방송이 나왔다.

"이번 역은 길음, 길음역 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어떤 상담

고민남 : 저는 분유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매스컴에서 자꾸 분유보다 모유가 좋다고 강조 해서 요즘 분유 판매량이 뚝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분유보다 모유가 좋은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광고를 해야 판매량을 늘릴 수 있을까요?

상담사 : 광고를 포기 하세요. 모유는 우선 담겨져 있는 용기부터가 황홀할 정도로 예쁘지 않습니까?

■복수

신혼 첫날밤, 가슴이 포도알 만한 아내에게 남편이 "야! 엎드리지 말고 똑바로 누워!" 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아내. 어떻게 복수를 할까 궁리 궁리를 하다가, 침대에 벌거벗고 누운 남편을 바라 보았다. 남편이 계속 엎드린 자세로 누워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아내가 엎드린 남편의 두다리 사이를 보고 하는 말. "너 여자지?"

뉴스퀴즈 71·72회 김길님씨 1등

광주일보가 실시한 71·72회 뉴스퀴즈 추첨 결과, 김길님씨가 1등에 뽑혔습니다.

김씨는 16일 광주일보 편집국에서 열린 상품 추첨식에서 진공 청소기의 주인으로 당첨됐습니다.

71·72회 뉴스 퀴즈에는 엽서와 편지로 321명이 응모했으며,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답자 2명을 뽑아 순서에 따라 등수를 정했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홍보 사원 박선영씨가 추첨을 했으며, 공정한 추첨을 위해 광주동부경찰서 윤승철 경장이 입회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등 ▲김길님·장흥군 안양면

2등 ▲김형기·광주시 북구 운암동

뉴스퀴즈

73. 최근 5·18 광주민중항쟁을 소재로 한 영화 또는 무대 예술 작품들이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27년 전 광주의 아픔을 정면으로 다룬 영화가 있는가 하면 짬뽕 한 그릇으로 5·18이 일어났다는 기상천외한 상상에서 출발한 연극도 공연됐습니다. 또 황지우의 희곡을 토대로 한 대형 창작 뮤지컬도 내년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5·18을 소재로 한 작품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①다이하드 4 ②화려한 휴가 ③짬뽕 ④오월의 신부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7일(음 6월 4일 壬子)

子 36년생 협조자가 나타나서 새로운 일을 추진해간다. 48년생 적장을 포로로 잡은 격이니 큰 상이 있을 수. 60년생 의외의 돈은 쉽게 사라진다. 72년생 새로운 연인을 만날 기회가 생긴다. 84년생 이웃을 살펴보면 도울 일이 많으리라. 행운의 숫자 : 18, 32

丑 37년생 주변의 도움으로 신사가 발생한다. 49년생 하루가 평안하니 주위를 둘러보라. 61년생 자녀가 떨어져 살아야 할 경우가 생기지만 좋은 일이다. 73년생 고개를 숙여서 땅을 한번 살펴보라. 85년생 계획한 일은 잘 이루어지리니. 행운의 숫자 : 04, 45

寅 38년생 협조자는 있으나 결과는 반반이다. 50년생 사기문서에 속상할 수니 올바로 처신하면 면할 수 있다. 62년생 과욕만 없으면 결과는 좋으리라. 74년생 보고 싶은 사람이 찾아온다. 행운의 숫자 : 24, 25

卯 39년생 구사가 괴롭히나 큰 일은 아니다. 51년생 외부의 일이 가정에까지 소란사로 변하니 세심하게 살펴보라. 63년생 처음에는 고통스러우나 나중은 편하리라. 75년생 착실한 전진으로 꼭 성취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3, 45

辰 40년생 삼사일언하면 미움은 없으리라. 52년생 옛 감정은 빨리 털어버리면 새로운 정이 솟아난다. 64년생 말다툼이 송사로 비화 될 수도 있으니 빨리 감정을 정리하라. 76년생 애인이 불안하다. 행운의 숫자 : 05, 26

巳 41년생 차 조심 사람조심. 53년생 미운 사람과 좋은 사람이 생긴다. 65년생 아늑한 보금자리이나 불편한 사람이 같이 있다. 77년생 자신과 가정 사이에 불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1, 35

午 42년생 마음의 고통은 있으나 가정은 평안하다. 54년생 허황된 문서만 조심하면 대손은 없다. 66년생 부부사이에 이해있는 대화와 사랑스런 자녀를 살펴보라. 78년생 세상에 극복되지 않는 어려움은 없다. 행운의 숫자 : 21, 25

未 43년생 가득 찬 창고가 모두 내 것은 아니다. 55년생 수하인과의 동업은 절대 금하라. 67년생 간장과 위장의 평안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아보라. 79년생 새 문서를 친구가 가져오나 검토는 자세하게 해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 14,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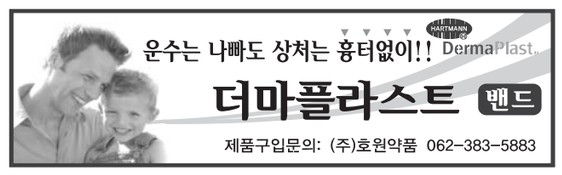
申 44년생 어려워 보여도 쉽게 해결난다. 56년생 정은 있으나 만나지 못하고 안타까울 뿐이로다. 68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고 내실있게 결정 난다. 80년생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결과 속이 꽉 찼다. 행운의 숫자 : 17,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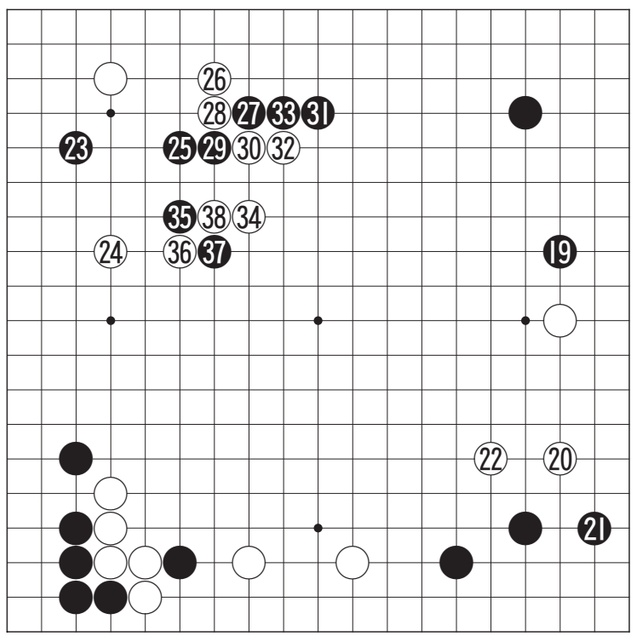
酉 45년생 파도가 높으니 대고가 예상된다. 57년생 가정의 힘은 식탁에서 나온다. 69년생 방풍림은 여자가 만들어야 효과가 있다. 81년생 남을 높이면 자신도 올라가니 남부터 올리고 실리를 차려라. 행운의 숫자 : 08, 37

戌 46년생 좋은 협력자를 만나 큰 도움을 받는다. 58년생 집안은 평안하고 집 밖은 시끄럽다. 70년생 만나는 사람마다 오래가지 못하니 선택을 잘해야. 82년생 이성 보다 친구를 만나라. 행운의 숫자 : 09, 36

亥 47년생 욕심은 화를 부르니 소탐대실 하지마라. 59년생 모든 일에 불편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처신을 잘하라. 71년생 친인척의 변동으로 걱정이 생길 수도 있다. 83년생 가계는 국가 경제로 통한다. 행운의 숫자 : 07, 40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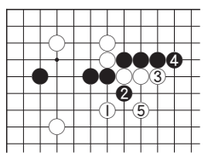




제16회 랑일배 직장대항 단체 4회전

왕년의 유행형 협공 2보(19~38)

白 유병수 5단 (포스코) 黑 유흥주 5단 (KT전남본부 A)



〈참고도〉

이 한판은 단체전 입상은 물론이고 개인전 4강에 진출하는 중요한 길목이다. 흑 19 쪽에서 다가선 것은 취향이다. 반대쪽에서 다가갈 수도 있으나 보다 넓은 쪽에서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기리와도 부합된다.

백 20과 22는 가벼운 착상이다. 집을 만들기 보다는 두터움을 지향하고 있다. 반대로 유흥주 5단은 21로 지켜 실리를 좋아하는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백 24는 왕년에 유행하던 두칸 높은 협공. 최근에는 바둑이 급박해져 한칸높은 협공이 휠씬 사랑받고 있지만 불과 몇년전까지만 하더라도 매판마다 이 모양이 한번씩은 등장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었다.

백 34로는 '참고도'의 1로 씌워갈 자리였다.흑 2로 젖히더라도 3으로 밀고 5로 막힌다.38까지 난해한 싸움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KYOBO 교보생명

바둑소식

김혜민 4단, 대리배서 선승

김혜민 4단이 16일 중국 운남성 대리에서 열린 대리배 세계여자바둑선수권대회 결승 1국에서 박지은 7단을 326수 끝에 흑 1집 반으로 제압했다.

김 4단은 남은 대국에서 1승을 추가할 경우 우승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김 4단은 이 승리로 최근 박 7단을 상대로 2연승을 올렸지만 역대전적에서는 2승7패로 밀리고 있다.

중국 바둑계가 탄생시킨 세계여자바둑대회인 대리배는 중국 8명, 한국 6명, 일본 6명, 대만 1명, 미국 1명, 유럽 2명 등 모두 24명이 출전했다. 결승 2국은 18일 열린다. 대회 우승상금은 10만위엔(1천300만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949>

Would you like to talk about it over lunch?

점심을 들면서 얘기를 나누시죠?

A : What do you think about our new plan?
B : Well, it's lunch time.
Would you like to talk about it over lunch?
A : That's a good idea.
B : Please , this way

A : 저희 새로운 계획, 어떠세요?
B : 음, 점심시간인데요.
점심을 들면서 얘기를 나누시죠.
A : 그거 좋지요.
B : 그럼 이리 오시죠.

* What do you think about ~ ? : ~은 어떠세요?
* over lunch : 점심을 들면서
* 저는 지금 좀 바쁜데요.
= I'm in a bit of a hurry
* 정말 적당하군요
= That's perfectly all right with me.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요우 니혼고 <949>

また手抜(てぬ)き工事(こうじ)なんでしょうかね。

또 부실 공사인가요.

A : あの建物(たてもの), 少(すこ)し傾(かたむ)いているように見(み)えませんか。
B : そう言(い)われれば, なんとなく。
A : また手抜(てぬ)き工事(こうじ)なんでしょうかね。まったく, 怖(こわ)いですね。
B : 工事(こうじ)は正確(せいかく)に誠実に、やってもらいたいですね。

A : 저 건물 조금 기울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B : 그러고 보니 왠지…
A : 또 부실 공사인가요? 정말 무섭군요.
B : 공사는 정확하고 성실히 해 주기를 바라고 싶군요.

手抜(てぬ)き : 해야할 수고나 공정, 절차를 생략하는 것을 말함
傾(かたむ)く : 기울다, 비스듬하다, 치우치다
怖(こわ)い : 무섭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139>

没问题，我帮你找

문제 없어요, 제가 당신을 도와 찾아보겠습니다

A: 一张黄色的纸条，上面有一个电话号码。
Yī zhāng huángsè de zhǐtiáo, shàngmiàn yǒu yí gè diànhuà hàomǎ.
[illegible]

没问题，我帮你找。
méiwèntí, wǒ bāng nǐ zhǎo.
[illegible]

B: 快帮我找吧，我急死了。
kuài bāng wǒ zhǎo ba, wǒ jí sǐ le.
[illegible]

A: 是不是这张！张华，1-3-8……
Shì bú shì zhè zhāng! zhānghuá, yāo-sān-bā……
[illegible]

B: 正是这张，快给我。
Zhèng shì zhè zhāng, kuài gěi wǒ.
[illegible]

A: 누런색 쪽지 위에 전화번호 [illegible]가 있다는 말이지.
문제없어, 내가 너를 도와서 찾아볼게.
B: 빨리 찾아줘, 급해 죽겠어.
A: 이거 아니야? 장화 [illegible]…
B: 바로 이거야, 빨리 줘봐.

找 [zhǎo] 찾다
急死了 [jí sǐ le] 너무 애타다
正是 [zhèngshì] 바로 이다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
☎ 3838-868

한자 이야기 <566>

三遷之敎(삼천지교)

석 삼, 옮길 천, 어조사 지, 가르칠 교

삼천지교(三遷之敎)는 맹자(孟子) 어머니가 사는 집의 장소를 세 번이나 옮기면서 아들 맹가(孟軻·軻는 맹자의 이름)를 교육한 일에서 나온 말로, 아이 교육에는 주변 환경이 중요함을 비유한다. 다른 표현으로 '맹모삼천(孟母三遷)'이라고도 한다.

추(鄒)나라 맹가는 집이 묘지(墓地)에 가까워서 어린 맹자는 어려서 장례식(葬禮式) 흉내를 내면서 놀았다. 맹가의 어머니는 "이곳은 내 아이를 살게 할 환경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시장(市場) 가까운 곳으로 이사(移徙)하였다. 그러자 맹자는 상인들이 손님과 흥정하는 흉내를 내면서 놀았다. 맹모(孟母)는 다시 이곳도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학교(學校) 근처로 이사하였다. 이번에는 맹자가 제례(祭禮)랑 예절(禮節)을 흉내 내면서 놀았다. 맹모는 "여기야말로 우리 아이를 위해 살만한 곳이다."라고 말하고 그대로 그곳에 눌러 살았다. 맹자는 성장하여 유교(儒敎)의 대학자가 되었다.(烈女傳)

맹모가 옮겨 다녔던 '묘지'와 '시장'과 '학교'는 당시의 신분제 사회에서는 매우 상징적인 비유이다. 금전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면 두 번째 환경이 최적이었겠지만, 유교적 가치를 우선시 하였기 때문에 하급관료가 되는 배움의 장소를 최종 결착지로 삼았던 것이다.

〈한예원(韓睿嫄)〉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6505